

제
6
호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 256-1260-1 FAX (0361) 257-1260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이 기도모임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편 126편의 말씀에 따라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오직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눈물로 간구함에 목적이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안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 하심을 간구 하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초교파적인 중보기도모임이다.

●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진리를 믿고, 자유와 창조의 건국이념이 수호, 차달되는 밝은 나라가 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한국인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며, 공짜를 바라지 않고 땀흘려 일하며,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가 가진것으로 베풀며, 권세

와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공산세계에서 주님의 긍휼과 구원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북한 땅이 하루 빨리 무신론과 절대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개방의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 사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더이상 불순종과 나태에 빠지지 않고, 모든 용기와 능력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기도 모임은 95.1.26 서울에서 중앙회를 결성하고 21개 지회를 국내외에 두고 매주 기도예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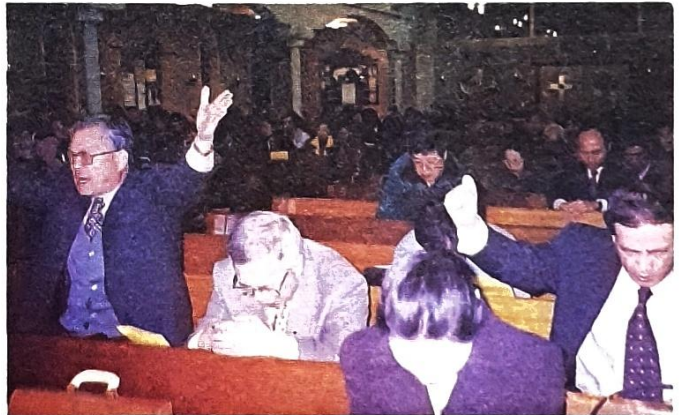
대전, 광주, 부산, 춘천, 청주, 속초, 포항, 충북영동, 강릉, 원주, 수원,

안양, 천안, 중앙대학, 행정고시원 (해외지회)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북가주, 뉴잉글랜드, 애틀란타
서울등 타지역에서는 "비전 126 중보기도 모임"이라 부르며 춘천은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이라고 명명

하였다.

본 기도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World vision(선명회) 강당에서 성시 기도모임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 비전 126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



▲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평화감리교회 방문)

춘천중보기도학교 개교

이제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종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너누웨성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로 폐역해 가는 세대, 세계적인



▲ '99년 2월 4일 오후 8시 중보 기도학교 개교예배(선명회)

전쟁과 기근, 기상이변, 사탄교의 출현, 뉴에이지 운동의 침투·유로화의 출현 등 종말의 징조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므로 강력한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들도 중보기도로 대각성운동을 일으켜 사탄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폐역해 가는 사회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금번 문을 열게 된 "춘천 중보 기도학교"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기독교인들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 변화되고 모든 교회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도 일꾼 배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보기도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춘천을 살리고 하나님의 도성, 성시화를 이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1기 춘천중보기도학교는 2월 4일 오후8시에 개교하여 12주(매주1회)간의 교육훈련을 거쳐 수료하며, 수료자(33명)는 기도모임의 리더 자격을 부여 받고 교회, 선교회 등 필요한 모임에서 기도인도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제2기 교육은 본 성시신문에 보도하고 일간신문 전단지 등을 통하여 알릴 계획입니다.

■ 연락

- 이춘일 목사, 전화 팩스 겸용
☎ (0361) 261-3167
- 성시화운동본부
☎ (0361) 256-1260

■ 감사

- 명성훈 목사(서울) 교회성장연구소장
- 기찬종실장(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이춘일 목사, 전문 감사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기적을 이루는 5대 자원

(마 14:13~21 김주환 목사 설교 요약)



김 주 환 목사
순복음 춘천교회

벧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수 있게 한 것은 다섯가지 자원 이 있습니다. 춘천 성시화도 이러한 자원이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주님의 말씀이 기적의 자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에서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물을 내려 두배에 가득찬 물고기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 드림이 기적의 자원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때 기

적은 일어났으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춘천성시화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 기도와 물질등 내가 가지고 있는것을 드릴때 이루어 질 것입니다.

• 기도가 기적의 자원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떡을 찾고 다녔기에 소년의 도시락을 발견하였으며 오천명이 먹고남는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 축복과 감사가 기적의 자원입니다.

보리떡 다섯개 물고기 두마리 위에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줄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사도는(롬12:14) 너희를 핍박하는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으며 감옥에서도 감사 찬송과 기도를 드리므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 나눔이 기적의 자원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순복음 교회가 다른 순복음교회의 개척을 방해하고 막았는데... 결국 그 교회는 쇠퇴하고 목사는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나눔에서 5천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엿것을 찾으라

(골 3:1~4 한균 목사 설교 요약)



한 균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감투따라 일하려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춘천 성시화 기도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성시화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위엿것을 찾게 됩니다.

교회가 계급화·제도화 되고 예수이름을 이용해서 군림하고 이득을 취하고... 성전의 계급을 부수고 종교화된 조직을 부수고 새로운 영적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붙잡으면 변화됩니다. 도시복음화에 있어서도 높은자 능력이 있는자 보다 힘없는자 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쇠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힘없는자 병든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시화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높고 힘있는 자들이 믿었고, 성직자는 귀족 계급이 되었으나 세속 권력과 함께 부패하였으며 쇠퇴하여 공동묘지로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앞에 누구인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요 체면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고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할때 위엿것을 찾고 소유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위엿것은 하나님의 것, 천국·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위엿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죽지않고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할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진정으로 헌신되고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갈 2:20절은 죽는 것이 사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없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신자들이 기도할때 자기는 죽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성시화의 대전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죽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죽음에 나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나 교단에 매여있고 너무나 많은 조직과 직분을 가지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고 하

오리황제(皇帝)



조 영 훈 장로
춘천 CBS 본부장

땅위의 모든 동물들이 왕을 뽑기 위해 모였다. 여러 동물들이 경합한 끝에 사자를 왕으로 뽑았다.

이 얘기가 전해지자 바다의 고기들이 우리도 왕을 뽑자고 했다. 갑론을박 끝에 상어를 왕으로 뽑았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모였다. "우리도 왕을 뽑읍시다" 의는 끝에 만장일치로 독수리를 왕으로 뽑았다.

동물들은 왕이 셋이나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지 육, 해, 공을 총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황제를 뽑기로 하고 대표들이 모였다. 오랜 시간 갑론을박한 끝에 오리를 황제로 뽑았다.

땅위에서 걸을 수 있고, 공중을 날 수도 있고, 물위를 떠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나?

이 얘기를 우리 개신교의 헌장에 도입해 보려고 한다.

교단별로 교단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다. 인격과 신앙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분들을 치열한 경합 끝에 선출하게 된다. 교단장은 교단내에 상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획한 사업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런데 교단이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은 대표자의 역할이 오리 정도밖에는 통솔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공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연합사업이 되면 도대체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

그 사례 하나.

기독교 CA-TV가 부도가 난지 1년이 되어 간다. 연합사업으로 수십 개의 교단이 직접 출자하여 주식회사로 설립한 회사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영상 매체가 부도가 났던 말진, 프로그램이 형편없는 내용이진 말진, 방송이 중단되진 말진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간의 경영이 방만했다는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운영의 주체들은 각

교단을 대표하여 연합사업에 파견되었던 분들이지 않는가

불교는 그만 두교라도 신도수에 있어 개신교의 1/3에도 못 미치는 천주교가 운영하는 CA-TV는 잘 유지되며 좋은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그 사례 둘.

지난 1월 4일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 신년 교례회가 윈드비전 강당에서 있었다.

그날 참석하신 목사님이 내 기억으로는 일곱 분이셨다. 참석했던 나는 깜짝 놀랐다.

250여개 교회에 300명이 넘는 교역자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개 교회는 사자이고 독수리일 수가 있는데 왜 연합사업은 우리의 모습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 의문이다.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사암중앙교회의 어제와 오늘



최 상 도 목사
사암중앙성결교회

본 교회는 1989년 5월에 창립한 농촌교회이다.

춘천중앙성결교회(윤철중 목사 시무)의 지교회로 세워진 사암교회는 중앙교회 제직중 농촌선교의 꿈을 가졌던 몇몇 집사님들이 교회의 도움으로 사암리, 학곡리 일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다가 개척하게 된 유래를 가진 교회이며, 평신도들에 의해 시작된 몇 안되는 평신도 중심교회이다.

초창기 어린이전도협회, 베드로정형외과, IVF등의 도움을 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빈민선교에 힘을 기울였는데, 당시 피폐한 농촌으로서 알콜중독자, 지체장애인, 빈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작고하시거나 타지로 이주 하였으며, 현재는 사암리, 학곡리 지역에 발맞추어 도시화로 접근하고 있다.

50여명의 지체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과 대학생, 청년그룹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2년전부터 1:1 성경공부에 주력하여 현재 교회내에 15개의 제자훈련 양육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양육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훈련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회성장의 방향을 농촌안주형 모델보다는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도농교회공동체(都農共同體)로 대학청년층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성경중심적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는 젊은이들을 훈련하기 위해 15평 규모의 선교관을 지어 5-6명의 지체들이 함께 생활하며, 성경공부와 노동, 교회공동체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사암교회 미래상을 담은 "2010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농촌도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며, 비전의 구체화를 꾀하고 있다.

아직도 도시 몇교회로부터 과분한 선교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약한 농촌교회지만 주님의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매년 교회 총재정의 20%정도를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다.

올해의 표어를 "성경의 사람을 심자"로 결정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보다 깊은 성경공부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젊은 층의 전도에 주력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성경공부방을 마련하려고 기도중에 있으며 성경중심의 생활을 위해 성경쓰기 운동, 성경공부 운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회로써 춘천시신화의 비전을 가진 교회이다.

감동을 주는 노종의 전화

춘천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탈바꿈하기를 소망하며 매주 목요일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신 노 장로님께서 기운이 급강하한 탓인지 2.3주 보이지 않았다. 1월 16일 오전 11:10분경 노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북지역의 특유한 억양 섞인 말투로 기도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날씨가 풀리면 꼭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출을 금하라는 담당의사의 말이있고, 쓰러지면 덕이되지 않을것 같아 본 교회 새벽기도회와 성시화기도모임을 잠시 중단하고 가정에서 기도드리다는 말씀이었다.

전화 수화기로 들려오는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스한지.....

나는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가식없는 진실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장로님 같이 가식없는 진실한 언어로 기도드릴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다.

전화를 받고 난 후 나의 기분은 상쾌하였고, 위로가 되었으며 마음 깊이에서 잔잔한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춘천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언어로 교통하고 협력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며, 교파간·교회간·성도간에 따뜻하고 진실된 언어가 이루어질때 협력이 있고 성시화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스블론과 남달리



이 희 수 수필가

한국수필가 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문학상 수상('99)

마태복음 4장은 전도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다. 그중에서도 '스블론과 남달리'라는 지명에 시선이 멎기 시작한다. 이제 제자를 새로이 맞이할 예수께서는 스블론과 남달리 지방의 호숫가 가파르나움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왔다'로 자신의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신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중에 '보속(補贖)'이라는 말은 참 감동적인 말이다.

굳이 사전적 의미를 짚어본다면, '죄의 나쁜 결과를 보상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죄값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용이 담긴 말이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인간에게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이사가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으로 이미 예언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나의 죄를 조건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보잘 것 없는 자신이지만 그분을 향해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짧은 지식이지만 지구상의 그 많은 종교를 일별해보고 내린 나의 결론은 기독교처럼 '회개'에 대해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다.

하루가 저물어 열린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다보면 하루종일 내가 뿌리고 던진 씨앗들이 고스란히 살아나 주위를 빙빙 돌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된다. 세치 혀로 던진 나의 언어로 우선은 내가 괴롭고 그 말 때문에 상처입었을 이웃들에게 미안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따뜻한 방과 고즈넉한 평화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것에 감사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스런 운지 모른다.

지구 어느 끝에는 나 아닌 누군가가 오늘 내가 어지럽힌 영혼의 어둠 때문에 깊은 보속을 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그만 전율이 일다. 어쩌다 장애자 요양원을 다녔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들의 해맑은 표정속에 담겨있는 육신의 고통은 우리가 무수하게 뿌린 죄의 씨앗이 치뤄야 할 보속이라는 것을 그나마 우리가 이 혼탁한 속에서 이만한 분량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그렇처럼 깨끗한 영혼의 회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베품 몇가지를 던지고 생색을 내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오히려 가슴이 아프다.

가끔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만났을때 옛날 내가 했던 것 같은 절규를 들을 때가 있다.

"이게 왜 내 몫의 불행이어야 하느냐"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그 불행속에는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터무니 없는 항변을 했던 자신을 향해 조금은 실소가 터진다. 어느 경우엔 그 시간이 나의 보속시기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때 좀 의연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들지만 바로 그런 나의 모습이 한계지점이다.

보이지도 않고 또 알수도 없는 누군가를 향해 묵묵히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교가 갖는 사랑의 위대함이다. 그리고 자주 그런 대열에 설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다. 어찌 지상에서의 안락함 따위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세속의 잣대로 이 깊고 오묘한 세계를 함부로 폄하시킬 수 있겠는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 후에 가슴을 치는 통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주는 그래도 살만한 공간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拂하는 보속이 있기에 그나마 내 하루가 또한 지拂만한 시간이다.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누릴 복(福)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회개에 대한 선포가 더 우선되어야 할 바라고 그리고 보속하는 영혼의 기쁨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다.

스블론과 남달리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는 같은 음성으로 오늘 이 교장을 향해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왔다"

교계뉴스

춘천시신문 새로운 제호 사용

춘천시신문

98년 9월 15일 성시신문을 창간하면서 신문제호를 聖市新聞으로 정하고 사용하여 왔으나 성시화 운동본부 기획위원회와 성시신문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춘천시신문"이라는 한글 제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권위있는 작가를 모색하던중 갈내 이만진 선생님의 협조로 제호를 받아 사용하

게 되었다. 춘천시신문이란 제호는 99년 1월27일 오후2시에 완성되어 성시화운동본부로 이송되고 신문지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것이다.

춘천의 3백여 교회와 성시운동본부의 모든 회원님들의 이름으로 작품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서예작가 갈내 이만진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만 진 작가

- 전국교원 서예실기대회금상
-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3회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 3회
- 한국미협지방작가초대전, 원로작가 초대전
- 강원서예대전심사위원역임
- 강원서예대전운영위원장(현)
- 주소 : 춘천시 우두동 삼성APT 103동 503호
- 전화 : (H)254-8722 (O)254-0898

부안감리교회 성전봉헌예배



99년 1월 18일 오전 11:30 춘천시 석사동 764-6번지(에막골국립박물관 정문앞)에서 교회개척 12년 만에 새성전을 마련하고 춘천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동부연회총무 방현목사와 춘천남지방 감리사 정상문목사의 집례로 봉헌 예배를 드렸다.

새 성전은 대지 110평 건평 195평(지하1 지상2층)으로 총공사비 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목장군담임목사와 성도들의 회생과 봉사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립할 수 있었다. 이 성전을 통하여 춘천지역의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99년 1월

성시화기도모임

날짜	사회	대표기도	말씀	합심기도	참석인원
1/7	신종철 안수집사	홍세표 장로	윤철중 목사 (살후 1:1-2 은혜와 평강)	허광웅 장로	15명
1/14	김남철 장로	최종인 장로	김광국 목사 (왕하 6:14-19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김남철 장로	23명
1/21 비전126	박무일 장로	맹영웅 장로	김주환 목사 (마 14:13-21 기적을 이루는 5대 자원)	조은제 장로	25명
1/28	김영명 안수집사	유근창 집사	한 군 목사 (골 3:1-4 위에 것을 찾으라)	김동원 장로	20명

모여기도할때 성시화는 봄이 오듯 고 외면할때 사탄의 계략은 성공합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내가 게으르고 방 거룩한 도성은 회생과 봉사의 피와 관할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비방하 맘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슬비 전도학교



목회자를 위한 이슬비 전도학교훈련이 99년 1월 18일~19일 남춘천 감리교회(류진형목사)에서 목회자와 사모, 목사후보생, 전도자, 새신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칠천오백여 교회에서 교

육을 실시하여 7만여명의 전도사명자를 배출하였다.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5번지 규장선교센터 TEL(02) 575-0691. 578-9003 FAX:578-0245

기독교문화

직장선교

1999년의 소원

주여! 1998년이 가면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실직자들,
 수많은 퇴출자들,
 수많은 노숙자들,
 그대로 남겨놓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1999년의 새해는 왔습니다.
 기고 많은 동해바다에 얼굴 씻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새생명 주시려고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주여! "해"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지여
 우리에게도 해처럼
 밝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포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쓰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친근함을 주옵소서
 웃음과 부드러운 얼굴을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금품과 불쌍히 여기는 인자한 성품을 주옵소서
 까다롭고 뾰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옵소서
 교만과 오만의 제일이니 체 하는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실수와 실패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망의 자리에서
 긍정과 소망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꾸어주옵소서
 어둠과 컴컴한 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냉랭하고 찬마음에서 따뜻한 훈련함을 주옵소서
 비굴함과 누추함에서 깨끗한 성결함을 주옵소서
 놓을 것을 놓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깎을 것을 깎게 하옵소서
 이 모든 소원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 멘-



정용진 목사

· 전 흥천군 기독교연합회장
· 흥천 창촌감리교회

도 교육청에 파송된 직장선교 일꾼들



김용배 장로
도교육청 선교회장

우리 사회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복음전파의 중심역할이 개별 교회에서 직장선교 단체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선교회는 직장내의 초교파적인 교회이며 회원들은 직장인 구원을 위해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직장 복음화의 사명을 느끼게 된 저희 교육청 기독교인들은 1992년 봉의동 구청사에서 10여명이 모여 신우회를 조직하고 인근에 위치한 중앙감리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교회에서는 장소와 지도 목사를 배치하여 말씀과 신앙 지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3년동안에 신우회는 많은 부흥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앙감리교회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직장선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우동 새청사로 이전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청사 내에서

예배모임을 갖지 못하고 인근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회의를 하고 있는 형편이며 회원들의 기도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직장안에서 말과 행동에 모범이 되고저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동료직원을 공개적으로 찾아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분청과 일선의 근무지 교류에 따라 전출되는 신우회원들이 그곳에서 신우회를 조직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때면 기쁘고 보람을 갖게 됩니다.

저희 신우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각 회원들이 기도제목을 쪽지로 만들어 나누어주고 모두가 그것을 위해 틈틈이 기도할 수 있게 하며 평상시에는 비어 있는 대강당 한쪽에 그날의 기도문을 게시하고 누구든지 가서 기도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이후 매월 회보를 발행하여 본청과 일선에 보내 문서선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보에는 기도문과 성경공부, 투고 교육청소식 등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기도는 지난 3년간 도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춘천시시화운동의 적극 동참과 2만여 강원교육가족 구원, 30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광교회



담임목사 정하영

장로 장동희

춘천시 서면 당림1리 1번 ☎(0361) 263-2537

기독교 평화교회



담임목사 한균

전도사 김상영
 장로 김동렬, 장석진, 김헌배, 오문식,
 김종식, 신 현, 민경옥
 원로장로 심이배 협동장로 민철호
 교육전도사 김우용 윤혜은 이용옥 이길형
 사무간사 김윤자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 ☎(0361)241-5621~2 FAX 256-56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북교회



담임목사 김지한

원로목사 김은일
 전도사 김병환
 장로 백승욱 민경천 박광장 배춘길

춘천시 신북읍 물문리 257-7 ☎(0361)242-2254, 242-8854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기독교인들의 문화공간 홀리갤러리

Holy Gallery를 즐겨찾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지만 목사, 전도사, 평신도, 믿는자와 믿지 않는자등 참여 폭이 넓은 편이다.

스테이지에는 피아노, 기타, 드럼 등 각종 악기가 놓여 있고 여러개의 테이블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분위기가 음악실이나 카페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98년 3월 홀리 갤러리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대화와 휴식, 놀이등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적인 대화와 노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므로써 신앙의 생활화에 보탬이 되며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다.

텔런트와 관객이 따로 없는 분위기로 누구나 원하면 스테이지의 악기 연주와 찬양에 참여하여 자기를 표현하고 남의 표현에 공감할 수 있는 곳이

다.

Holy Gallery를 경영하는 박성모 선생의 베이스기타 연주와 즉석 연주자들의 소리의 하모니에 어우러지는 즉석 싱어들의 찬양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명호 복음송가수 등 전문 싱어들의 노래와 목사님을 통한 성경공부가 종종 있다.

이곳에 비치된 홀리노트는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으며, 노트에 쓰인 짧은 글들은 위로와 도전 감동을 주고 위로침과 용기를 더하기도 한다.

그외에도 책장을 넘기는 맛, 벗들과 나누는 대화, 목을 축이고 입맛을 돋구는 음료, 고소한 한쪽의 토스트는 젊은이들의 친구가 되기에 충분하다.

Holy Gallery는 오전12시에 문을 열고 오후12시에 닫으며 술은 팔지 않는 분위기이며 제일은행 맞은편 한일은행 빌딩 지하에 자리하고 있다.



World vision 자원봉사자 대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99년 1월28일 오전10시 복지관대강당에서 춘천지역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고 지난해 자원봉사에 대한 노고를 위로 격려 하였으며 22개 우수봉사단체·개인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등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자원봉사를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이영련교수의 특강(강원대 무역경제학과)교육과 사례발표·토론시간을 가졌다.

●표창장, 표창패 수여 단체및 개인

춘천시장상	중앙감리교회
춘천시의회장상	서이원
월드비전회장상	손덕중, 지형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상	동래면 보건요원 성화숙, 홍금복(표창패)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남춘천감리교회, 신복음보건지소 백순옥, 김옥춘
월드비전 강원도지부장상	춘일교회, 금산교회남선교회
월드비전 춘천복지관장상	김선자팀, 후평장로교회, 소나무

●감사패 수여

- 신복음부녀회
- 효자1동고부회
- 효자1동부녀회
- 신사우동고부회
- 신사우동부녀회
- 퇴계동부녀회

●감사장 수여

- 98춘천어린이집 자모회
- 효자1동 정현근



사람을 찾습니다

대전기독교 연합회 서기 박종덕 목사님께서 신학대학 졸업후 소식을 알 수 없는 송조영 전도사님(당시)이 춘천에서 지역(장로교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즉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 서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박종덕 목사
(042)531-6454 (휴)019-431-5454
춘천시시운동본부사무국(0361)256-1260~1

기독교 사랑교회

담임목사 염명동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남선교회장 박재석 집사
여선교회장 정해순 집사
청년회장 윤문규 성도
성가대장 박재석 집사
피아노반주 오병례 집사

춘천시 후평2동 692-24 ☎ 255-8424

기독교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이종백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남선교회장 김남수 집사
여선교회장 어금옥 집사
청년회장 김남혁 집사
성가대장 고광번 성도
피아노반주 고석은 성도

춘천시 효자2동 704번지(7/6) ☎ 257-1509

서울신학교 교회음악과 춘천분교
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전공분야 : 지휘, 오르간, 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

·원서교부 및 접수 : (1차) 99.2.1~2.19
(2차) 99.2.22~3.5

(매일 10:00~18:00 토요일 공휴일제외)

·교부 및 접수처 : 200-190 춘천시 온의동 514번지 대일빌딩 7층

춘천분교 교무처(강남병원 옆 춘천에맥신협건물)
전화(0361)255-8808, 241-7118

우리의 꿈 우리의 시명 춘천시와

성시칼럼

거룩하고 값진 성시화사업에 참여합시다

성시화사업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행동으로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성시화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성시화 사업일까요. 그것은 성시화로 한 걸음 진입하는 것이며 구경꾼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시화를 포함시키고 대화할 때에 성시화를 말하고 성시화를 위해 모여 기도할 때에 출전 참여하고 얇은 호주머니 어려운 재정에서도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거리에서 개인 가정 직장 시민 생활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단체, 업체는 월 만원 이상을, 개인은 천원 이상을 진심으로 드리고 성령의 역사 하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시화사업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요나와 같이 회피하고 방관 베타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분들은 매월 1천원에서 십만원까지 교회와 선교단체, 업체는 1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을 성시화의 척박한 밭에 뿌려 옥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은 성시신문을 읽고 스스로 돕겠다는 성도님들의 전화와 송금, 말없이 부산에서 후원에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성시화 후원 예산을 책정하고 송금하는 여러 교회와 단체, 개인 이러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성령께서 역사 하시게 하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성시화 사업에 필요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핑계 회피 방관 부정적인 모든 것을 지금 곧 버리고 "네"하고 동참할 때에 성시화는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 봄을 맞은 새싹처럼 보이도록 일어날 것입니다.

청주시성시화운동본부창립예배

청주시 기독교 연합회(회장: 임복만 목사)는 청주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는 성시화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성시화운동창립을 결의하였으며 지난 1월29일 오후7시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83-2에 소재한 북대동교회(민병익 목사)에서 초교파교회 목사, 장로, 집사들과 인천 대전 춘천에서 온 축하자들이 함께 창립예배를 성대하게 드렸다.

성시화위원연석회의

춘천시성시화운동의 일선에서 출전하여 수고하시는 성시화운동본부 기획위원과 성시신문운영위원들의 연석회의 및 간담회가 99년 2월 23일 오후6시

청주시 성시화운동본부는 춘천 인천 대전에 이어 네번째로 창립을 보게 되었으며 청주 도성의 성시화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춘천에서는 조남진장로(성시화본부장) 신종철안수집사(홀리클럽총무)등 여러분이 축하차 참석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본부장 정원재 장로(전충북대교수) 김기진장로 김연학 장로 김인재장로 임덕수장로 조성진 장로 사무총장 최진작장로를 선출하였다.

삼천동 어린이회관에서 열리며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금년도 성시화운동과 성시신문제작 및 성시신문고문, 지도위원 추대의 건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이다.

성시 회비 송금 방법

농협 203-02-280238(예금주/조남진)
강원은행 509-05-025501-001(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39352(예금주/조남진)
국민은행 301-01-0585-522(예금주/조남진)
제일은행 625-20-265119(예금주/조남진)

- 회비-(단체)월1만원이상, (개인)1천원이상
- 년회비-10만원, 특별회비-5만원이상, 평생회비-100만원
- 송금방법은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세요.
- ※매월 5일 강원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시 입금수수료가 없는 날입니다.

성시신문 기사 보내주세요

보내실곳

원고접수기간: 5일까지

주소: (우200-091)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춘천시신문 제작부

☎(0361)256-1260~1

FAX: (0361)257-1260 PCS:016-246-2752

PC통신ID: KIBIBLE2(하이텔)

E-mail: KIBIBLE2@hitel.net

성시신문은 아주 작은 소식 매체지, 투고도 감사히 받습니다.

※ 구 독: 성시신문 정기구독(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 본신문은 3,000부를 발행하며 무료입니다.

성시회원 1월 후원현황

성시회원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지극하신 정성으로 성시화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후원금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 드리오니 헤량하시고 금중한 사함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교회와 개인들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후원자

월 1,000원 - 5,000원: 최영희 왕순옥 김현철 이병연 안정숙 고선희 신영숙
이영림 성기은 허순영 정유양 박승희 권순이 김영달
이봉자 최경용 임은경 이준택 홍순복 정순녀 홍성운
정용현 이홍순 정찬복 오홍수 황병찬 박동환 이창임
김숙자 이경용 김춘배(10,000) 박재복 이영랑 고신옥
신만승

월 6,000원: 임승하
월 10,000원: 이문자 신성균 장기영 한석웅 조광수 이영규 김기태 윤진옥
맹영웅 박영희 김석범 김남철 이학규(100,000) 김진호
월 12,000원: 박승호
월 20,000원: 김태중 김철수 양인평 김영명 조충환
월 30,000원: 조남진 유근창 신종철
월 100,000원: 조은제 이윤규

단체후원자

월 20,000원: 춘천택시(주)
월 50,000원: 대광장교회
월 100,000원: 알로에 마임
월 1,032,170원: 순복음 춘천교회

광고선교비후원자

- 대한인쇄기획 보조금: 200,000원
- 성시화기도모임 보조금: 300,000원
- 일진의료기 박영희 장로: 100,000원
- 중가, 강원대학 태백관 식당 대표 정을섭 권사: 100,000원
- 평화감리교회: 1,000,000원

※ 송금중에 있는 후원자

- 1,000원 ~ 5,000원: 김광순 김성옥 서원탄 지금복 한영숙 임이남 이화자
박희숙 김은자 김성금 박은주 이윤식 정명순 이승철
백기만 이미경 조성애 신영자 이종택 이재현 안희현
이경자 홍신일 고영희 강원영 김영순 윤영순 장효덕
서의승 장수영 황용학 황희중 한대희 임성택 허광웅
김창호 김종용 안미정
- 10,000원: 강주원 김중혁 김진삼 김은양 김복희 김영선 박무일 이경숙
안동규 이상표 유태희 이해영 윤진배 조자영 서승달 한재화
임외호 최구식 지영철 명위식
- 12,000원: 민혜원
- 20,000원: 조정일 심혁화 최인혁 정태복 최계천
- 30,000원: 유수열 박경애 박봉영 조석봉 정동준 배원일 배명숙
- 100,000원: 최지광
- 20,000원: 직장선교연합회
- 30,000원: 일신장교회
- 50,000원: 열림침례교회
- 500,000원: 중앙성결교회
- 광고선교비: 성광전기 김철호 집사: 100,000원
안디옥 기독교서점 홍광유 장로: 100,000원 이상
중앙감리교회: 500,000원
강촌 갈보리 기도원 이평해 원장
석정갈비: 300,000원
어린이회관 디너레스토랑: 200,000원 이상

특별칼럼

“聖市化”의 깊고 신비로운 뜻



이 윤 구 박사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공동대표

춘천을 거룩한(聖) 고을(市)로 변모(化)시키는 신령한 운동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예사롭게 받아 들이고 그 깊은 뜻,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신비로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숙고하는 일에는 좀 게으르지 않은가 하는 자기

성찰을 해 보게 됩니다.
「聖市化運動」은 春川이란 한 고을에 머무는 공간적 제약을 받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1990년대라는 시간적 한계도 훨씬 뛰어넘는 성령운동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며 기도에도 힘쓰면 곧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운동의 오묘하고 깊은 뜻은 사도 요한이 밋모섬 유배의 고통과 절망속에서 아세아의 일곱교회와 온 세상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의 혼의 눈으로 본 거룩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계시록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

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였습니다.(요한계시록 4:8)
「거룩한(聖, 하기오스[히랍어], 차시드 [히브리어])이란 형용사의 뿌리는 최악의 속세에서 성별(聖別)되어 하늘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 그리고 영원끝까지 만유의 주재이심을 믿고 그렇게 날마다 그 높은 보좌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이 춘천에 전사민이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거룩한 믿음과 삶을 철저히 사는 의인 몇천, 아니 몇백, 몇십명만 계시면 성시화 운동은 뜨겁게 달아 오를

것입니다.
고을(市, 포리스 [히랍어], 포레오 [라틴어])
는 "충만", 또는 "채우다"라는 뜻으로 사람, 물질, 가족 등이 가득 가득 모이고 땅을 채운다는 고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나라같은 완숙한 새도시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히브리 12:22~23) 함께 있다는 확신과 신앙생활이 없이 춘천, 아니 어느 고을도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미리 사는 성도들이 이 고장에 모이고 켜어서 악취가 나는 죄악이 발붙일 틈이 없이 성령으로 가득차 있는 고을이 춘천이

아야 하고 그래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자라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변화, 변모, 변혁(化, 메타모르포오[히랍어], transformation)은 성시화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거룩한 고을」(聖市)은 눈에 보이는 변화, 찬란하게 변모하는 모습, 그리고 영혼과 정신의 세계의 기적같은 변혁입니다. 춘천에 진정한 성시화 운동이 열화처럼, 성령의 불처럼, 은총이 넘치는 강물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하늘나라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함께 보고 느끼며 거룩한 고을로의 변모현장에 동참하고 흡수되는 날, 참 의미의 성시화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춘천이 한반도와 한민족이 치어다 보는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아세아와 땅끝까지 놀이 추앙을 받는 거룩한 호반의 도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제자운동(JDM)

예수제자운동은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는 비전을 가지고 1977년 한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며 복음전도와 제자 훈련 세계선교를 중심으로 복음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본문 성경공부와 제자 훈련, 가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고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즐거워하는 모

임이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내에 10개 외국에 11개 지부와 선교원 등을 두고 있으며 서울에 디모데 훈련학교와 간사 훈련학교 춘천에 국제 선교 훈련원과 목회자 제자사를 두고 전문 교육과 생활 훈련을 통하여 21세기의 주역으로써의 적응력과 능력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2월20일까지 제9기 한국제자훈련원생을 모집하며 3월2일의 제자 되기를 즐겨위하는 모

연락처

- 한국제자훈련원(KDTI)
200-600 춘천시 우체국 사서함 6호(광판)
(0361)262-3192 243-6703
FAX 243-6705
- 국제선교훈련원(IMTI)
200-600 춘천시 우체국 사서함 6호(만천리)
(0361)243-6701-4
FAX 243-6705
- 예수제자운동(JDM)
서울시 성동구 성동우체국 사서함 97호



▲ 춘천시 만천리에 있는 국제선교훈련원
(예수제자운동대표, 한국제자훈련원장 윤태호 목사 이사장 김창환 목사)

(02)2281-2948
FAX 2281-1948
• 간사훈련학교

서울시 성동구 성동우체국 사서함 97호
(02)2281-2948

포도나라 만나원 Manna Grapes Farm



대표 김 기 현 권사
평화감리교회

만나농장은 유기농산물만 생산합니다.
구정 선물로 접직어 두세요!
전화 주문 환영합니다.

- 포도 보액즙 ⇒ 비닐 팩 50개들이 1상자 40,000원
병(진공) 1.5 / 1병 7,000원
- 발효 포도즙 ⇒ 1병 1.5 / 24,000원
* 성찬용 포도주 1.5 / 20,000원
- 호박 보액즙 ⇒ 비닐팩 50개들이 1상자 30,000원

농장 :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전화(0361)244-5052

홍천강

무궁화 쌀



안 선 혁 조합장



洪川農業協同組合
TEL. (0366)434-3380~2

홍천농협 연합 미국처리장
TEL : (0366) 434-8391
FAX : (0336) 434-8392